

04. < 「사씨남정기」를 통해 알아보는 배경과의 상응, 대화와 대화체 구별>

-----2000학년도 대수능

(가) 각설 이 때 한림[유연수]이 물가를 따라 점점 가며 탄식하되,

“내 당초에 혼미하고 용렬(庸劣)하여 요사한 말을 귀담아 들어 현인(賢人)을 방출하고, 위로 조상 제사를 받들지 못하고 아래로 처자의 성명을 보전치 못하고 또 신세 만 리에 떠돌고 문호(門戶) 하루 아침에 몰락하니, 이 또한 만고의 우부(愚夫)요 천지간 죄인이라. 부부의 정이 사씨에게 멀어지고 부자의 정이 인아(鱗兒)에게 단절하니 살아 무엇하리오.”

무수히 탄식하며 악주(岳州)\*에 이르러 강가에서 방황하며 어부를 만나면 문득 사씨의 소식을 탐문하되 종적이 막연하고 소식이 묘연하니 한림이 더욱 원통하고 울적함을 이기지 못하여 강촌에 가 곳곳에 묻더니 촌사람이 말하되,

“그 때 사씨 회사정(懷沙亭)으로 향한다 하더니다.”

오래 듣다가 황망히 행하여 회사정 아래 이르니, 고목의 잎이 누렇게 떨어진 가운데 인적이 끊어지고 여러 짐승들이 좌오루 울되, 다만 눈앞에 보이는 바는 동정호(洞庭湖)\*구의산(九疑山)\*과 소상(瀟湘)\*의 저물 무렵의 구름이라.

-----이하 생략.

(나) 한림이 이에 원혼을 위로하고자 하여 강촌에 내려가 술상을 갖추고 등불 밑에 앉아 제문을 지으며 슬픈 감회 가슴에 가득하여 피눈물 흘러 지필(遲筆)을 적시니 밤늦도록 지으나 한 자도 이루지 못하고 앉아 탄식만 하더니, 문득 함성 소리 진동하거늘 한림이 대경하여 창을 열고 보니, 한때 도적이 창검을 가지고 들어오며 크게 소리하여 왈, “유연수는 가지 말라.” 하거늘 한림이 크게 놀라 북쪽 창을 열고 나와 급히 도망하여 동서를 분별치 못하고 달아나니, 황급한 말을 어찌 다 기록하리오. 겨우 백여 걸음 가다가 뒤를 보니 불빛이 점점 가까워 오고 함성이 더욱 진하니 한림이 당황하여 초목 사이로 살기를 바라 달리더니 의관이 다 부서지더라. 급히 가매 수풀이 다하고 큰 강이 닥치니 몸에 날개 없으니 어찌 능히 달아나리오. 적당(賊黨)이 외쳐 왈, “유연수 비록 살고자 한, 팔랑개비라 하늘로 오르며 두더지라 땅으로 들랴?” 하며 급히 쫓아오거늘 한림이 하늘을 보고 탄식 왈, “내 어찌 이 곳에서 죽을 줄을 알았으리오. 차라리 강계 던져 부인의 혼백을 의지하리라.” 하고 강을 향하고 달리더니, 홀연 바람결에 사람 소리 들리거늘 한림이 생각하되 이곳에 혹 어선인가 하고 황망히, 달리더니 달빛은 희미하고 적적한데 멀리 바라보니 조각배 하나 떠오르고 푸른 옷을 입은 여동(女童)이 뱃머리에 의지하여 손으로 물결을 희롱하며 낭랑한 소리를 시를 읊고 있거늘,

----- 이하 생략

-----여기서 문제!

50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한림의 정서와 공간적 배경이 상응하고 있다.
- ③ (나) : 한림의 내면 갈등이 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④ (나) : 급박한 상황 전개가 시간적 배경과 상응하고 있다.

-----

**잘 생각해보시고!!**

-----

일단 결론적으로 답은 ③이다. 우선 ①부터 순서대로 한번 보자.

①이 옳은 선지인 이유는 일단 (가)를 읽어보면 한림이 ‘탄식’, ‘원통’ 해 하고 있음을 눈이 있다면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한림은 지금 매우 ⊖, 즉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자 이제! 공간적 배경도 ⊖라는 것만 찾아낸다면 상응한다고 볼 수 있어! 근데 공간적배경도 진짜 ⊖니? 응! --> 회사정 부분에 보면, 고목의 잎이 누렇게 떨어진(⊖), 인적이 끊어지고(⊖), 저물 무렵의 구름이라(⊖). 원래 하강이미지들은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따라서 참!

③이 틀린 이유는 일단 한림의 내면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은, “내 어찌 이 곳에서 죽을 줄을 알았으리요. 차라리 강게 던져 부인의 혼백을 의지하리라.” 이 부분인데 애는 비록 대화체이긴 해도, 대화는 아냐! 독백이지! 지금 누구와 말을 주고받고 있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 즉, 대화와 대화체는 구별 해야되! 이게 포인트다!

자! 그럼 ④은 왜 옳은 선지인걸까? 당시 이 문제를 필자는 ④이 도대체 왜 정답인지 몰랐었다. 필자처럼 이 문제를 못 풀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 (나)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달빛은 희미하고 적적한데 멀리 바라보니 조각배 하나 떠오르고 푸른 옷을 입은 여동(女童)이 뱃머리에 의지하여 손으로 물결을 희롱하며 낭랑한 소리를 시를 읊고 있거늘.” 이 부분에 꽂혀서 문제 풀면 된다. 즉, 당시에 나는 이 부분만 집중해서 도대체 왜 이 부분이 급박하다는 거지? 상당히 여유롭고 평화로워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다. --> 싸대기!!! 이 문제를 풀고 싶다면, 시간적 배경에 포커스를 뒤야한다.

시간적 배경은 (나)의 2번째 줄에 보면, ‘밤늦도록’ 이란 부분 보이지? 말 그대로 시간적 배경= ‘밤’ 이란 것이다. 아 선생님! 밤에 도망가는 것이 도대체 뭐 어쨌다구요? --> 밤에 도망갈 때와 낮에 도망갈 때 그 긴박감 급박함이 같다고 볼 수 있니? 아무래도 낮 보다는 밤에 쫓기는 게 다른 시간대에 쫓기는 것에 비해 질적으로 그 급박함이 다르지! ----> 따라서, 밤이라는 시간의 특수성 때문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어.

<여기서 얻는 교훈은 앞으로도 계속 말할테지만, 언어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는 약간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장 확실한 답만을 체크하고 넘어갈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 14. < 함께하는 소설 속 심리추론 마스터하기 파파야!>

「화수분」이라는 작품을 통해 알아보시다. (지금부터 제시하는 「화수분」이란 작품의 제시문은 분량을 위해 원래 문제와 다르게 임의로 제가 요약하면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작품이 궁금하시다면 원작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가난한 집에 자식이 좀 많았음. 그 집의 엄마가 다른 집 엄마랑 얘기하는 도중 다른 집 엄마에 의해 자기 큰 딸을 좀 잘사는 다른 집에 입양시키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를 받음. 어차피 가난한 집에 애들 많아봤자 다 굶어 죽는다고 막 설득 당함. 그래서 가난한 집 엄마는 정말 고민함. 입양을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래서 남편에게 아침에 이 사실을 말함.. 그랬더니 ‘내가 아나, 입자 마음대로 하게 그러.’ 그리고 일어서 지계를 지고 나가버리겠지요.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결국 입양 보내버림.

----- (중략) -----

그걸 안 남편은 통곡을 함. 저녁도 안 먹고 우는 것이 가여워서 밥 지어 줘도 안 먹음. 여복하면 제 자식을 꿈에도 보듯 못 하던 사람에게 주겠어요.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요. 집에 두고 굶기는 것 보다 나갈까 해서 그렇지요.

----- 여기서 문제! ㉠에 담긴 아범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수수방관                      ②자포자기
- ③무사태평                      ④진퇴양난

-----

**잘 생각하시고!!!**

-----

선지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수능 언어영역에서 쓰이는 ‘심리’에 관해 알아보자. 심리 제시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 1). 직접                      2). 간접 : 행동, 상징적 소재, 배경, 대화— 직설적: 의도(생각)을 그대로 드러냄,  
— 우회적

∴ 심리 추론 할 때 대화에서 하는 것이라면 글자 그대로의 접근은 주의하라!

why? 직설적 대화에선 의도 그대로 다 말해준다고. 그러니까 시력테스트용 문제도 아니고 직설적 대화보고 심리 추론을 묻겠니? 그러니 심리추론을 묻는 문제들은 우회적 말하기일 확률이 높으니 글자 그대로의 접근은 하지 말라는 것.

그럼 우회적 말하기의 심리추론은 어떻게 할까?

- 1. 주변 문맥 바탕의 심리 추론 (인물간의 관계 고려, 연관되는 사건을 통해 판단.)
- 2. 보편적 정서에 기초.(보편적 공감의 가능성이 있다면 된다.)

-----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선지들을 분석해보자.

‘수수방관’은 왜 답이 안 될까?

‘네 마음대로 해라’를 글자 그대로 파악하면 딱 수수방관이야. 근데 이것은 우회적 말하기의 심리추론 방법 중

‘2.보편적 정서에 기초’라는 부분에 딱 걸림! why? 자식 입장을 두고 수수방관 하다는 것이 보편적 정서에 맞냐? 아니지! 물론 소설에선 돌I, 반인륜적 미X놈들이 가끔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출제자가 교육상 정서적으로도 해로운 개들의 심리 추론 하는 문제를 낼 수 있을까? 없어.

∴ 따라서 융통성 있게 보편적 정서에 맞게 해석!!

‘③무사태평’은 왜 답이 안 될까?

상황상 안 맞아. 딱히 상황이 뭔가 여유로움? 그런 것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중략 이후엔 또 통곡하면서 울잖아?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어.

‘④진퇴양난’은 왜 답이 안 될까?

진퇴양난은 이렇게도 못하겠고 저렇게도 못할 때 쓰는 말이야. 즉! 이게 정답이 되려면, ‘아! 우리 애를 쥐야 하나? 안 그래도 힘든 살림에 TT.’ ‘아! 그런데 우리 애 주고 나면 나는 슬퍼서 어떻게 살어 TT.’ 어떡하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네! 의 상황이 나와야 하는 거지!

‘②자포자기’이 왜 답일까?

중략 이후에 보면 아이를 입양 시켰다고 하니 슬퍼서 통곡하잖아! 이것으로 봤을 때, ㉠은 너무도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 그래서 저런 말을 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지.

∴ 언어가 어려운 이유가 수학처럼 딱딱 정확한 방식이 정해지지 않고, 정통 언어 읽기 내공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 간혹 있어서이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평가원이 요구하는 사고방식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할 수 밖에 없다. 상당히 애매하고 추상적인 말이라서 몹시 죄송하지만, 이 책을 통해 공부하면 평가원 Style의 사고와 논리의 흐름을 체화해 어느 순간엔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마다 공백을 주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문제를 한 김에, 뽀나스로 <사자성어 주의 특집! 단사표음 ≠ 안빈낙도> !!!**

누항사를 보면, ‘단사표음을 이도 죽히 너기노라.’라는 부분이 있다.

**\*단사표음 = 단표누항 : 가난한 삶, 검소한 삶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가난해도 만족한다**는 뜻의 ‘안빈낙도’와는 전혀 다른 말이라구!

cf). 빈이무원: 가난해도 세상에 원망이 없음.

그런데도 우리는 단사표음과 안빈낙도를 자꾸 착각을 한다. 왜 그럴까?

—————> 상황 상 단사표음이 안빈낙도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

즉, 여기서 봐도 단사표음 자체는 가난한 삶이지만, 이를 죽히 여긴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밑줄 친 부분 문장 전체가 통제로 묶이면서 안빈낙도의 뜻이 될 뿐이지!!!

### 33. < 제시문과 직결되는 보기 문제 풀이 방법! >

2004학년도 9월 평가원의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을 통해 알아보자.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둠 방은 우주로 통하고 /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는 /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여기서 문제!

문제: <보기>는 문화적 상징의 맥락에서 위 시의 시어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다)의 시어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백골: 불안, 결핍, 순결, 금욕, 목상의 대상    방: 공포, 밀폐, 비밀, 몽상, 폐쇄적 환상

어둠: 혼돈, 기원, 성숙, 휴식, 물질적 정신적 힘의 교류

바람: 권능, 영감, 전달, 공기, 순수성과 열정    개: 감시, 충직, 통찰력,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매

- ① ‘백골’ 은 시적 자아의 빈약하면서도 정결한 삶을 상징한다.
- ② ‘방’ 은 시적 자아의 내면에 깊숙이 존재하는 정신적 공간을 상징한다.
- ③ ‘어둠’ 은 시적 자아의 고통의 근원이자 영혼을 성숙시키는 존재이다.
- ④ ‘바람’ 은 시적 자아의 영혼을 소멸시키는 대기의 힘을 의미한다.
- ⑤ ‘개’ 는 시적 자아의 영혼을 일깨워 우주로 안내하는 존재이다.

---

잘 생각해보시고!!

---

일단 답은 ④이다. 참고로 요즘에는 이렇게 문제를 내지 않아. 이게 보기형 문제의 초창기 문제라서 다소 어색한 면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핵심내용만 뽑아내고 가자.

파트32에서 이렇게 부정형 문제인데 제시문과 보기가 직결, 다시 말해 보기가 제시문의 내용을 해설하고 있는 것일 때, <보기>를 활용하여 문제를 풀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보기>에서 답의 근거를 찾아야 해. 자! 당시 내가 질문 했었던 내용을 적어볼게. “선생님, ④이 답인 이유가요, 풍화 작용하는 놈은 백골이지, 아름다운 혼은 아니니까 그런 것이죠? 백골≠아름다운 혼인 이유는 4번째 줄에서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로 딱 2개로 나눠 봤으니까 당연히 백골≠아름다운 혼이지요. 제 생각이 맞죠...?”

==> 싸대기!! 자! 내가 방금 적인 이 밑줄 친 부분은 다소 장황한 것 같지 않니? 수능에서 문제의 답인 이유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야 한다면, 90%이상 너가 말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고 봐라!  
↑↑↑ 이게 이 페이지의 핵심 내용이다.

답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 <보기> 보면 바람: 소멸이란 내용이 있니? 없지? ∴④이 틀린 것이야. 이것이 딱 적정한 깊이이다.

물론 여기에 대해 당시 재수생 시절 나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선생님! 아무리 보기 문제라도 ‘시’ 자체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시된 시에 보면 ‘풍화작용’ 이라는 말이 버젓이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온다 ->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한다. ∴바람이 풍화작용의 주체이니까 소멸이란 것은 <보기>에 안 나와 있어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싸대기!! 이것 역시 나 자신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해석’ 일 뿐이다. 해석은 사람마다 이견이 있을 수 밖에 없어!

자! 이 풍화작용이 시의 ‘바람’ 때문이란 것은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

+여기에 덧붙여서 ④선지의 ‘영혼’ 이 시 속의 ‘아름다운 혼’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이것 역시 해석일 뿐이라고! Why? ‘백골①을 들여다보며 백골②이 우는 것이냐’ 를 두고 생각해보자. 이 백골①과 이 백골②이 같다는 보장이 있니? 없어! △라구!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내= 백골 = 아름다운 혼’ 으로 다 같이 보는 사람도 있어. 백골=> 육체, 아름다운 혼=> 정신, 내=> 이것들의 집합으로 말이야.

∴ 정리해보면, ④에서는 소멸이란 것은 <보기>에 없는 것이니 틀린 것이고, 영혼 = 아름다운 혼? 이것은 근거가 없으니 △치고 넘어갈 것.

(그런데 왜 이렇게 까지 <보기>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어야 할까? <보기>를 의존하지 않는다면, 딱말로 시 자체만 보면 ①~⑤ 까지 우기면 전부 다 틀렸다고 할 수 있어. 시 자체로는 근거가 없다구! 그러니까 문제 만드는 이가 시의 내용을 <보기>로 아예 해석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풀라고 냈던 문제인 거지. 그리고 아까 해석하다가 놓친 것이 있는데,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에서 바람은 풍화작용의 주체가 아냐! 그러니까, <보기>에서도 바람을 두고 저런저런 의미가 있다고 하고 소멸의 내용은 뺄 수 있었던 것이지. + 그리고 ①을 봐봐. <보기>가 없었더라면 백골 보고 정결한 삶? 말이 되니 이게? 아니지? ㅇㅋ! )

## 52. < 2차 추론? => 했다가는 아주 주옥 되는 거야! >

2005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30~33번 지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출제되었다.

「만장(萬章)이 물었다. “공자께서 진(陳)나라에 계실 적에

㉠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우리 마을의 선비들은 광간(狂簡)하고 진취적이거나 초심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자께서는 진나라에 계시면서 어찌하여 노나라의 광견(狂獫)한 선비들을 생각하신 것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공자께서는 ‘중도(中道)의 인물을 얻어 함께할 수 없다면 차라리 광견(狂獫)한 자와 함께하리라. 광(狂)한 자는 진취적이고, 견(獫)한 자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공자께서 어찌 중도(中道)의 인물을 얻고 싶지 않으셨겠느냐마는, 반드시 그런 사람을 얻을 수 없기에 차선의 인물을 생각하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광한 자인지 감히 여쭙겠습니다.”

“공자께서는 금장과 증석 그리고 목피와 같은 사람들을 광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왜 광한 자라고 합니까?”

“뜻이 높고 커서 ㉡ ‘옛사람이여, 옛사람이여!’ 하지만, 그의 평소 행실을 살펴보면 자신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자께서는] 이러한 광한 자를 얻지 못하면, 더러운 짓은 하지 않는 선비를 얻어 함께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견한 자이니, 광한 자 다음가는 사람이다.”

“공자께서는 ‘내 문 앞을 지나면서 내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유감스러워 하지 않을 자는 바로 향원(鄉原)이다. 향원은 덕(德)을 해치는 자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향원이라 합니까?”

“ [‘광한 자는] 왜 저렇게 잘난 척하는가? 말은 행실을 외면하고, 행실은 말을 외면하는데도 입을 열었다 하면 옛사람이여, 옛사람이여 하는가.’하고 [‘견한 자는] 어찌 혼자서만 도도하게 살아가는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세상과 어울려 사는 것이 좋은 것이지.’ 하면서 자신은 음흉하게 세상에 아첨하는 자가 바로 향원이다.”

(이하 생략) 」

—————여기서 문제!

위 글의 인물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은혜: ‘중도(中道)의 인물’ 이란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유형의 인물이겠군.
- ㉤ 수영: ‘견(獫)한 자’ 는 간간해서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어.

---

잘 생각해보시고!!

-----

답은 일단 ②이다.

재수생 시절 나의 생각: 답은 ⑤인 것 같아. 왜냐면 칸칸하다는 것은 ⊖어감이고, 도도한 것은 웬지 ⊕어감이  
라서.

==> 싸대기!! Why? 우리나라 말에는 어감이란 것이 있어. 그래서 도도하다와 칸칸하다는 어감 상의 차이는  
명확하게 말하긴 힘들어. 허나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잖아. 뭐? '혼자' 라는 것과 관련된 말들이라는 거지.

지금 문제는 부정형 문제야.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가능성만 있다면 넘어가야 해.

∴ ⑤은 맞다고 보고 넘어간다. 정 못밧겠으면 △치고 넘어가던지.

자! 이제 대망의 ②이야. 도대체 ②이 왜 정답인걸까?

현실적인 풀이: 중도의 인물은 공자가 얻고 싶어하는 ⊕인물이야. 하지만! ②에 주관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은  
⊖야. ∴ 상충되니까 ②이 답이야.

재수생 시절 나의 생각: 어라? 중도=중간질 ∴ 중도의 인물이란 것은 주관이 뚜렷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까?

==> 싸대기!! Why? 2차 추론이야. 예를 들어볼게.

철수는 착해. -> 착하면 남들 말 잘 들어줘. -> 그러다 보니 철수는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

재수생 시절 나의 생각은 지금 이 예시가 범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그 원리가 똑같아.

물론 지금 내가 제시문 뒷부분을 생략해서 그렇지 사실 이 제시문 전체에서 '중도의 인물' 이 나오는 부분은  
지금 적어놓은 저 부분이 다야. 저 부분만 보면 다음과 같이 논란의 여지가 생기게 되.

중도의 인물 : 1.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고, 난 딱 중간이 좋아! => 주관이 뚜렷한 거지! '중간' 을 추구하  
는 거니까.

2. 이것도 관심없고, 저것도 관심 없어. => 주관이 뚜렷하지 못한 거지!

즉! 논란의 여지가 딱 나오니까 네 맘대로 2차추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근거가 없다면 제시문의 중도의  
인물은 딱 중도의 인물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따라서 ②같은 추론은 확실히 답인 선지이므로 ②을 답으로 체크하고 넘어갔어야 했어!



## 71. 어미와 조사.

70번 파트에서도 잠깐 봤겠지만 어미란 단어를 썼다. 그럼 도대체 어미랑 조사가 뭘까?

기본 base: 어미랑 조사는 동등한 레벨에서 비교가 불가능해. 왜냐면 애들은 노는 카테고리 자체가 다른, 즉 다른 세계의 것들이야. 즉, 선생님 이건 조사예요? 어미예요?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야.

어미는 항상 어간과 세트로 나와. 즉, 어간/어미로 구별하는거고, 조사는 기본적으로 명사와 같이 나와. 즉, 용언의 어간 뒤에 오면 어미인거구, 체언 뒤에 왔으면 조사라고 보면 되.

아니 그러면! 어간은 또 뭐고! 체언은 또 뭔데요?

정말 딱 수능에서 필요한 범위까지만 파고 들겠다. 깊게 파고 들면 들수록 쓸 때가 없는 시간낭비일 뿐이다.

국어의 품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체언(보통 문장의 몸통이 되는 애들.) : 명사, 대명사, 수사

관계언(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표시해주는 애들이야. 따까리지.) : 조사

수식언(말 그대로 다른 애들 꾸며주는 말이야.) : 관형사, 부사

독립언(다른 성분 눈치볼 필요 없이 독립성 가지는 애들이지.) : 감탄사

용언(서술어라구. 문장의 주어를 서술해주는 애 말야.) : 동사, 형용사

흔히들 국어는 9품사 9품사 그러는데 여기 보이는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를 9품사라고 해. 이들을 어느 정도 덩어리로 묶어서 체언이니 관계언이니 등등으로 표현하는 거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언은 활용할 수 있어. 즉 쉽게 말하면 모습을 바꿔서 다양하게 활용한다구.

[떡다]를 예로 들면 떡다, 떡고, 떡니, 떡지 등등 으로 활용하잖니? 이처럼 용언(동사 or 형용사)이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떡’ 같은 애들을 = 어간이라고 하고, 용언이 활용할 때 바뀌는 ‘다, 고, 니, 지’ 같은 애들을 어미라고 하는거야. 즉, 어간 뒤에 붙은 나머지 애들은 어미라고 하면 되.

그럼 조사는 뭔데요? 관계언 할 때 조사 봤지? 조사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보통은 체언 뒤에 붙어.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애들 뒤에 붙는다구! ex) 철수는, 영희가, 사과를, 그에게, 그녀도, 하나에, 둘을,

첫째는, 둘째는, 제일은, 제이는 등등.

여기서 밑줄 친 애들을 조사라고 하는 거야.

조사는 9품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로 인정하고, 사실 기본적으로는 조사는 체언뒤에 붙지만 사실은 관형사 빼고 전부 어디든 붙을 수 있는 이상한 놈이야.

∴ 결론 짓자. 조사는 주로 체언, 그 중에서도 명사와 관련되서 나오는 애고 어미는 용언의 활용, 즉 동사 형용사의 활용과 관련된 것이다.

## 72. < 음운의 변동 > --- 우리의 목표는 사잇소리 현상 마스터다!

1. 음절 끝소리 규칙부터 보자.

1). ㄱ, ㄴ, ㄷ, ㄹ, ㅁ, ㅂ, ㅇ ==> 필자는 당시 ‘그녀다리만보여’로 저 자음들을 외웠었다.

음절 끝소리 규칙이란 발음할 때 받침에서 나는 소리가 저 **7개 자음 뿐**이라고. 발음할 때 예를 들면, ‘하얌’을 발음 하려면 글자 쓸 때는 ‘하얌’이라고 써도 막상 발음은 [하악]이라고 ㄹㅁ=> ㅁ으로 바뀌어서 발음 되는거 보이지? 뭐 그런거야. 이까지만 딱 알면 되. 다른 정상적인 예시) 밖=>[박], 햇님=>[헨님]

2). 음절 끝소리 규칙에는 예외가 있는데 이걸 다 외우긴 너무 힘들고 쓸 데 없다.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몇 가지만 외우고 나머지는 문제 보기에서 적용하면 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개념, ‘어말’에 대해서 배우고 간다. ‘어말’은 문법 문제 보기 속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단어로써 확실히 개념 잡고 간다.

어말: 단어의 끝 부분이야. 즉, 예를 들면 한 글자짜리 단어, ‘뭉’이 있다고 보자. 초성은 ㅁ, 중성은 ㄴ, 종성은 ㅁ이다. 따라서 뭉의 어말은 받침이자 종성인 ㅁ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 어말인 ㅁ은 ㅁ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ㄴ 뒤에 있는거야. 그래서 내가 초성 중성 종성이란 것을 들먹여서 설명했던 거지. ㅁ뒤에 있는 것은 ㄴ이고, ㄴ 뒤에 있는 것은 받침인 ㅁ이지.

이걸 굳이 왜 설명하냐면 문법 문제 풀다보면 어말인 ㅁ은 ㅁ뒤에 있다라고 충분히 낚시 걸수 있어.

한 글자 짜리를 예시로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글자수가 많은 단어의 어말에 대해 예시를 들어볼게.

가방을 예로 들어보자. 어말은 단어의 끝부분이라고 했어. 그러면 가방을 ㄱ + ㅂ + ㅂ + ㅂ + ㅇ 으로 분해했을 때 가장 뒤에 오는 것이 뭐지? ㅇ이지? 그럼 ‘ㅇ’이 어말이 되는 거야. 알겠지? 제일 뒤에 오는 것이 어말이야.

그럼 아까 어미에 대해서 배웠지? 어말에 대해서도 배웠으니 그럼 어말어미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기본 베이스: 1. 어말 ≠ 어말어미

2. 어말어미는 단어의 제일 마지막에 오는 어미야.

3. 선어말 어미란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있는 놈들. 선어말 어미에서 ‘선’이 먼저 先선이라고 생각하면 되.

4. 선어말 어미는 꼭 1개일 필은 없어. 얼마든지 맘대로 쓰면 되.

ex) 가시었다 ==> 가: 어간 / 시: 선어말어미 / 었: 선어말어미 / 다: 어말어미 야.

앉아 ==> 앉: 어간 / 아: 어말어미

가시었고 ==> 가: 어간 / 시: 선어말어미 / 었: 선어말어미 / 고: 어말어미 야.

이제 잘 나오는 예시 몇 개만 정리할 게.

뿡다[뿡따], 뿡고[뿡꼬], 뿡지[뿡찌], 뿡죽하다[뿡쭈카다], 뿡등글다[뿡똥글다], 뿡게[말게], 뿡다[막따]

이 정도는 몇 번 발음 따라 하다보면 입에 익을 거야.

자! 이제 우리가 하고자 했던 대망의 사잇소리 현상을 공부해보자.

수능에서 필요한 사잇소리 현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등불을 밝혀 잇몸에 낀 나뭇잎을 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면 사잇소리 현상으로 풀 필요 없다. 아니 저 문장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저 문장은 사잇소리 현상의 모든 유형을 담고 있는 문장이다.

①등불을 밝혀 / ②잇몸에 낀 / ③나뭇잎을 빼는 것이다.

1. 등불을 밝혀

등불: 끝소리(어말)가 울림소리(ㄴ, ㄹ, ㄹ, ㅇ, 모음)가 오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ㄱ, ㄷ, ㅃ, ㅆ 같은거)가 되는 경우 (물론 합성어인 경우야. 명사+명사 인 경우 말이야).

즉! 등불을 발음하면 [등뽕]이 된다. 울림소리 ㅇ이 왔고 뒷말 불의 첫소리가 ㅃ이 났으니까, 더군다나 등과 불 각각 명사+명사의 합성어인 경우니까 등불=> [등뽕]이라는 사잇소리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즉, 시험에서 등불이 [등뽕]로 발음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면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답하라구!

2. 잇몸에 낀

잇몸: 앞의 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의 말이 ㄴ, ㄹ로 시작할 때 ㄴ 1개가 덧나는 현상이야.

사실 사잇소리 현상이란 것은 발음 때문에 표기상에서 ㄴ을 첨가해주는 거야. 그런데!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사이시옷을 반드시 첨가해주는 것은 아니야. 이게 또 때에 따라 붙이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외울 필요 없고, 등불 같은 유형은 사잇소리 현상은 맞지만 사이시옷을 첨가할 자리가 없어서 안 붙었던 거고, 잇몸 같은 경우는 이+몸==> 잇몸으로 사잇소리 현상도 맞으면서 사이시옷도 첨가 해준거야. 즉! 정리하면, 이+몸이 원래 기본꼴인데 앞말인 이가 모음으로 끝났고, 뒤의 말이 ㄹ로 시작 했으니까 발음은 [인몸]으로 뜬금없이 이 밑에 ㄴ이 하나 첨가 되는 사잇소리 현상이 된거지.

3. 나뭇잎을 빼는 것이다

나뭇잎: 뒤의 말이 ㅣ나 반모음1로 시작될 때 ㄴ이 2개 덧나서 발음되는 현상이야.

나뭇잎은 사실 나무+잎에서 시작해. 그런데 뒤의 말이 잎이니까 1로 시작해서 나무+잎==>[나문닙]으로 없던 ㄴ이 2개나 뜬금없이 첨가되서 발음되지? 그래서 사잇소리현상이란 거야.

\*반모음 1: ‘ㅑ’, ‘ㅕ’, ‘ㅛ’, ‘ㅠ’, ‘ㅟ’, ‘ㅞ’, ‘ㅜ’, ‘ㅝ’, ‘ㅜ’, ‘ㅞ’, ‘ㅟ’ 같은 이중모음에서 선행음으로 소리나는 ‘1’를 말해. 무슨 말이나면 예를 들어 ‘ㅑ’를 예로 들어보자. ㅑ를 발음하면 [야]겠지만 사실 이 [야]라는 발음을 하기까지 초고속 카메라로 우리입을 보면 입을 벌리면서 이를 약간 발음하고 그 다음에 야라는 발음을 한다고 그냥 쉽게 생각해. 즉 [이야]라는 발음을 빨리 하다 보니

[야]로 딱 발음하게 된 거지. 이때 [이야]의 ‘이’ 같은 발음을 반모음 이라고 생각해.

알쏭달쏭 단어 中 일부분.

2). 책 속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단어나 항목, 인명 따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일정한 순서에 따라 별도로 배열하여 놓은 목록. ≒ index (ex: 외래어 ~.)

62. 염세적: 세상을 싫어하고 모든 일을 어둡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또는 그러한 것.

(ex: 전쟁 이후 예술은 ~인 경향을 강하게 드러냈다.)

63. 재담: 재주 (재) 말씀 (담) : 재치가 있게 하는 재미스러운 말

(ex: 그는 ~을 잘하여 인기가 킹왕짱)

64. 제반: ‘어떤 것과 관련된 모든 것’

(ex: 유물에 내재하는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인 ~ 속성들.)

65. 기반: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

66. 수습: 1). 흩어 진 재산이나 물건을 거두어 정돈함.

2). 어수선한 사태를 거두어 바로 잡음.

3).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어 바로 잡음.

(ex: 유품 ~, 사고 ~ 대책 본부, 민심 ~).

67. 맥락: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

68. 시인하다: 옳을 (시) 알 (인) : 옳다고 인정하다.

69. 할아버지 및 친족 용어 정리

나 -> 아버지 -> 아버지 -> 아버지 ->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숙부: 작은 아버지 // 백부: 큰 아버지

70. 파혼: 약혼을 깨뜨림.(≒ 절혼)

71. 소명: 까닭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함. (ex: 충분한 ~의 기회를 주다.)

72. 위촉: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게 함. ‘맡김’ 으로 순화

(ex: 정부로부터 ~을 받아 환경 문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73. 객수: 여행(객) 근심(수) : 객지에서 느끼는 쓸쓸함이나 시름.

74. 우수: 근심(우) 근심(수) : 근심과 걱정을 아울러 하는 말이지.

75. 제승: 여러 승려.

76. 가궁하다: 불쌍하고 가엾다.

77. 대관절: 여러 말 할 것 없이 요점만 말하건대

78. 약정: 약속하여 정함.

79. 육효: 역에서 점괘의 여러 가지 횃수 (ex: ~가 잘만 뽑히면야, 나도 족보를 팔아서라도 뭔가를 해보지.)

80. 맞돈: 현찰 (그래서 맞돈거래라고 하면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자리에서 물건과 물건 값을 주고받는 일.)

81. 선웃음: 우습지도 않는데 꾸며서 웃는 웃음.

82. 웬지 or 웬지 => 뭐가 맞을까? ===> 정답은 웬지(o). 웬지는 왜인지가 줄어든 말로써 뜻은 왜  
그런지 모르게 라는 것이다. '웬지' 라는 말은 존재x.

83. 상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84. 통념: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 But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잘못된' 개념은 아니야. 뜻 착각x!